

투데이 칼럼

세상은 창의적인 인재를 원한다

요즘 대학생들의 최대 관심사는 '취업'이다. 대학생뿐 아니라 고등학생들이 대학이나 학과를 선택할 때도 취업이 잘 되는지에 가장 많이 관심을 둔다.

그런데 최근의 채용시장이나 채용 방식이 크게 변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서류 전형-필기시험-면접-신체검사-채용' 이런 과정을 통해 채용이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서류 전형-인적성 검사-합숙 면접 또는 인턴-최종면접-신체검사-채용'처럼 변화가 감지된다. 과거에 중요시했던 필기시험, 스피크, 학력, 학벌 등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합숙 면접 또는 인턴 과정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인성, 창의성 등을 종합 평가하는 것이다. 기업에서도 학력이나 스피크 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창의적인 인재 한 명이 그 회사를 떠어 살리기도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요약하자면 세상은 '인성이 좋은 창의적인 인재'를 원한다.

그럼 창의적인 인재란 어떤 사람을 말할까? 창의력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그렇다면 또 창의력이란 무엇일까? 창의력은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 즉 남들은 생각지도 못한 것을 남보다 먼저 생각해 내서 무엇인가와 연결하는 능력이다.



이 경 재 전주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교수·시인

그런데 창의력을 키우는데 시(詩)만큼 좋은 것이 없다. 시를 창작하는 과정은 무엇인가를 연결하는 것이고, 그것은 기업에서 신상품을 개발하는 과정과도 매우 흡사하다. 시를 쓸 때 자유법, 은유법만 잘 활용해도 좋은 시를 쓸 수 있는데, 이들이 바로 연결하는 것, 즉 창의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자유법은 'A 같은 B', 예를 들면 '집승 같은 사람', '호수 같은 내 마음'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은유법은 'A는 B다'처럼 좀 더 공격적인 자유에 해당한다. 예를 들면 '그 사람은 짐승이다', '내 마음은 호수요'와 같은 형식이다. 자유법과 은유법은 이처럼 전혀 다른 A와 B가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와 창의력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노벨상을 받은 과학자와 그렇지

못한 과학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미시간대 연구팀 연구 결과를 보면 우리들의 예상과는 달리, 노벨상을 받은 과학자(1901년~2003년)들도 학교 성적이 평범했고, 지능지수도 일반 대졸자들의 평균 수준으로 별 차이가 없었다고 한다. 특이한 것은, 노벨상 수상자들은 다른 과학자들에 비해 예술 활동이나 취미 활동이 월등히 많았는데 음악 관련 활동 비율은 2배, 미술 관련 활동은 7배, 각종 공예를 하는 사람은 7.5배, 소설이나 시를 쓰는 경우도 무려 12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립 초기에는 이름 없는 사립대학에 불과했던 시카고대학도, 1929년 제5대 총장 로버트 허친스 총장 취임 후 '시카고 플랜'을 추진했는데, 이것은 고전 100권을 읽지 않는 학생은 졸업이 불가하게 한 제도가

다. 그 결과 지금까지 100명 가까운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였다.

이런 내용은 필자가 기업이나 지자체 또는 지역 도서관, 학교 등에서 주관하는 인문학 강의를 할 때 자주 다루는 주제이다. 한번은 강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아주머니 한 분이 뒤따라오셔서, 자녀분을 우리 학교에 보내시겠다고 학과 이름을 물어보신 적이 있다. 그래서 금융보험학과라 했다니, '시와 금융보험'은 도저히 연결이 잘 안 되는지, 고개를 가우뚱하고 가버리시는 것이었다.

대통령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경제 대통령임을 내세운다. 본래 대통령은 국방, 외교 등을 총망라한 정치를 하는 사람인데, 왜 경제 대통령임을 내세우려 애를 쓸까?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이제는 경제에서 나온다는 것, 그만큼 경제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 경제를 이끌어갈 금융보험 전문인을 양성하는 곳이 금융보험학과이다. 게다가 세상이 원하는 창의적인 인재가 되도록, 여러 가지 창의성 교육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손해사정사 등 관련 자격증을 제일 많이 취득하며, 졸업 후 취업이 제일 잘 되는 학과, 그것도 고액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 취업률이 제일 높은 학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사설

원광대학교 제14대 총장 선거

원광대 제14대 총장 선거가 열기를 더해 가고 있다. 박광수 총장 재도전 등 모두 6명이 등록을 마감하면서 치열한 진검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후보자들은 동료 교수는 물론 교직원, 학생들의 지지를 모으기 위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원광대 총장 초빙 공모 지원을 마감한 결과 박광수 현 총장(66)을 비롯해 김인중(64) 전 원광보건대학교 총장, 남궁문(60) 창의공과대학 교수, 박성태(64) 경영대학 교수, 박은숙(63) 대외협력 부총장, 조성갑(67) 한국종합경제연구원 원장 등 모두 6명이다.

원광학원은 총장 후보자 공모 시작과 함께 총장 후보자를 평가할 총장 후보자 평가위원회 15명을 추천 받아 구성했다. 평가위원회는 서류와 면접 심사 및 공개토론회, 구성원 평가 의견 접수 등의 평가 절차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어 총장 후보자 평가위원회

에서는 1개월의 평가 기간에 총장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한 후 총장 후보자 평가보고서를 채택한다. 이어 원광학원 이사회에 후보자를 추천하게 된다.

원광학원 이사회는 추천받은 총장 후보자 중 1인을 원광대학교 제14대 총장으로 선임한다. 한편 최근 원광대는 교육부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일반재정 지원 대학에 재선정되었다.

3단계 산학연 협력 선도 대학 육성사업, 고교 교육 기여 대학 지원 사업, 지역 혁신 선도 연구센터, 대학 혁신 지원 사업, SW 중산대학, 인문학플러스 등 정부의 재정 지원 사업에 큰 성과를 달성했다.

대학 경쟁력이 한층 강화된 것이다.

이번 총장 선임이 최근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해 대학 발전과 도약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총장 선거에 관심이 커지는 이유다.

장수 주는개상 전정희 센터장

전정희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이 제15회 의암주는개상에 선정됐다. 이 상은 순국한 의암주는개 의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2007년부터 나라와 이웃에 헌신한 여성을 대상으로 매년 선정하고 있다.

전정희 센터장은 전북여성 정치발전센터를 설립해 10여 년간 인권평등, 정치참여 등 여성 역량과 지위 향상에 기여했다. 일본·중국·미국여성 단체와 국제교류 세미나와 포럼, 학술대회를 열어 교류 폭을 확대하기도 했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당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비롯해 양성평등과 여성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전북 여성교육문화센터장으로 영호남 교류회를 통해 동·서 지역 간 장벽을 허무는데 힘쓰고 있다. 의암주는개상 추대식은 주는개 탄신 제448주년 기념 의암주는개제전 및 제55회 장수군민의 날인 9월 28

일 열렸다. 주는개(朱諭介, 1574~1593)는 조선 시대 열녀로 전라도 장수현 일대인 대곡리 주춘마을 출신이다. 부친 주달문(朱達文)은 40세가 넘는 나이에 딸 논개를 보았다.

부친 별세 후 숙부 주달무에 집에 위탁되었으나, 숙부가 버치발전센터를 설립해 10여 년간 인권평등, 정치참여 등 여성 역량과 지위 향상에 기여했다. 일본·중국·미국여성 단체와 국제교류 세미나와 포럼, 학술대회를 열어 교류 폭을 확대하기도 했다.

이때 장수현감 총의공 최경회(崔慶會)의 명판결로 모녀를 석방시키고 모녀는 현감에게 위탁했다. 그 뒤 최경회가 성년이 된 논개를 후처로 맞이한다.

1592년 임진왜란 당시 경상우도(慶尙右道) 명마필도사 최경회는 진주성 함락으로 순국했다.

논개는 왜군들이 진주 축성루에서 연회를 벌일 때 남강의 입에서 왜장을 끌어안고 투신하여 순절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세계 관광의 날 기념식 공연 펼치는 네팔 소녀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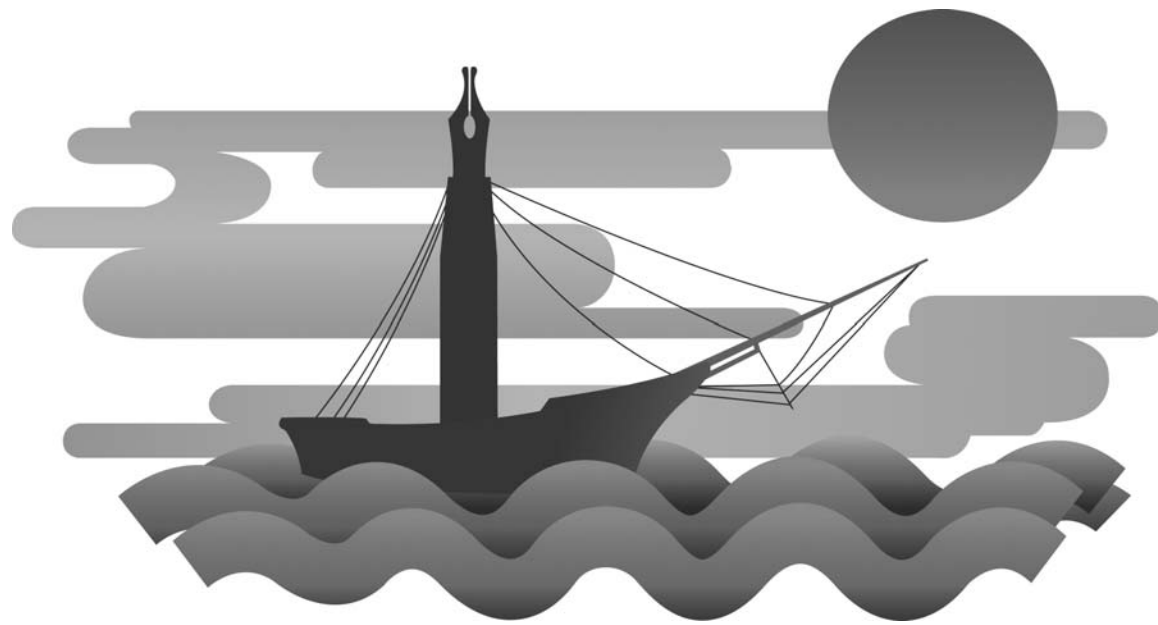


27일(현지시간) 네팔 릴리푸르 피탄 두르바르 광장에서 전통 의상을 입은 소녀들이 세계 여행의 날 기념 축하 공연을 하고 있다. UN세계관광기구(UNWTO)는 사회·문화·정치·경제적 측면에서 관광의 중요성을 국제사회에 인식시키는 것을 목표로 9월 27일을 세계 관광의 날로 지정했다.

시위 중 히잡 태우는 스위스 내 이란 여성들



27일(현지시간) 스위스 베른에서 22세 이란 여성 미호사 아미니의 의문사태 혐의하는 이란 여성들이 그들의 히잡을 태우고 있다. 아미니는 지난 13일 이란 테헤란에서 히잡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16일 돌연 숨겨 논란이 일고 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